

NEWS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광주시, 2030년까지 기술·미래 인재 81만명 양성

▶1면 ‘기후에너지부’서 계속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에는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DN 등 세계적 규모의 에너지 공기업과 에너지 특화대학이 밀집해 있어, 기후에너지부와의 유기적인 협업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상태다.

또한 전남도는 영농형 태양광,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분권형 에너지고속도로, 에너지 기본소득 등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남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여수산단·모도의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프로젝트와 여수·광양만권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및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운영, 해양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바다숲 및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다각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입지적 강점과 정책 선도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실효성을 갖고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전략의 문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과감한 전환의 시작점”이라며 “최전선 현장에서 답을 찾아온 전남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에너지부 조직 설계에 지역 목소리를 담고, 전남형 에너지 전환모델을 국가정책으로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유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1면 ‘코스피 2900’서 계속

이 대통령은 또 새정부의 추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정매매나 가짜정보를 통한 추가조작 등 전통적인 시장 질서 훼손 행위부터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산업·공공기관 87곳 ‘2030 인재양성전략 보고회’ 반도체 등 산업기술인력 육성

광주시가 인공지능(AI)·디지털,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전략산업의 성장을 이끌 산업기술 인재와 미래교육 기반 인재 등 오는 2030년까지 81만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광주시는 11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VX스튜디오에서 교육계, 경제단체, 산업계, 공공기관 등 87개 기관·단체와 함께 ‘2030 광주 인재양성전략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보고회에는 전남대·조선대·광주대·호남대·GIST 등 지역대학과 직업계 고등학교·광주인력개발원 등 교육기관, 광주경제자유총합회·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광주산학연합의회 등 경제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본부·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 등 금융공공기관, 광주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지방노동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주시·자치구·의회·교육청 등 지방행정기관, 산업계 등 87개 기관·단체에서 25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LIGHT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인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VX스튜디오에서 열린 ‘2030 광주 인재양성전략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지능(AI)·디지털,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전략산업을 이끌 산업기술인력 35만명, 미래교육도시 기반 확산을 위한 인재 46만명 등 오는 2030년까지 총 81만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광주시는 유·초·중·고부터 대학·대학원, 실무 전문으로 이어지는 뿌리부터 튼튼한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인공지능·디지털·반도체·문화콘텐츠 등 광주시의 핵심 전략산업에 연계한 교육-산업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인재-기업의 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실무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산학연 거버넌스체계를 강화하고, 광주에서 배우고 창업하고 정착하는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실현을 위한 시범 사업인 광주 우수인재와 혁신기업의 매칭데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인재를 키워 광주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인재가 힘이 다”며 “더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이 인재를 찾아 광주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동안 우리가 일구는 성과를 돌아보고 2030 인재양성 전략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산학연 87개 기관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LIGHT 인재’를 함께 키워자”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고미아 ㈜위치스 대표, 김창수 ㈜에임퓨처 대표, 윤희진 에이직랜드 팀장, 이선관 고스트페이스 대표, 김수형 전남대 AI산업단장, 손윤철 조선대 리창출을 통한 지역정착,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등 81만명의 인재양성을 통한 광주발전을 다짐하는 공동결의문을 발원 그룹장, 김대를 광주형마이스터고 교감, 박성진 GCC사관학교 교육생, 송자

연 늘봄마인드 대표(AI사관학교 수료생) 등 10개 교육기관과 기업, 교육생 대표가 영상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끌 인재양성 노력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재평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선미정 광주시 대학정책팀장, 서형섭 광주경제자유총합회 본부장이 우수한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정착,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등 81만명의 인재양성을 통한 광주발전을 다짐하는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17개 기관·단체 대표들이 결의서에 서명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장흥에 ‘전남도기록원’ 건립…기록물 전문 관리

전남도는 도내 중요 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전문적 관리를 위해 장흥에 전남도기록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전남도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시·도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도록 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다.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347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학생 수 감소로 2005년 담양캠퍼스로 통합·이전된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부지에 기록원을 건립함으로써 약 20년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던 도유지를 활용하는 한편,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의 통합과 연계해 국립대와 공공기관 간 상생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기록원이 건립되면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 생산한 공공기록물뿐만 아니

‘도유지’ 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부지 활용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3474㎡ 규모



전남도기록원 조감도

라 지역의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도 보존·관리하고 전시할 수 있다.

기록원은 군관리계획 변경, 행정안전부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 절차를 마친 후 2027년 7월부터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2030년 12월 완

공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록원을 통해 도민과 함께 기록물의 가치를 공유하고 활용해 우리 지역에 대해 더 잘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하남대로 16~20일 부분 교통 통제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공사 거더 설치

광주 종합건설본부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는 하남대로 구간(북구 동림동 933~70 일원)에 대해 부분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공사’는 상무지구 시청사 뒤편과 첨단 보호병원 간 4.98km를 잇는 4~6차선 도로 신설 사업이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빛고를대로 교통량 분산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 완화가 기대된다.

이번 부분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하남대로 구간은 철도 광주선과 하남대로를 횡단하는 코스로 총 연장 880m, 폭 21m 규모의 영산강대교(가칭)를 신설하는 공사가 진행된다.

종합건설본부는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이 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주간과 야간에 거더(다리 상판 밑에 끼는 보의 일종) 설치 공사를 진행, 도로를 단

교통 통제는 공사 일정과 작업 구간에 따라 날짜별, 시간대별로 달리해 실시한다. 총 왕복 6차로 중 4개 차로를 일시 통제하고, 나머지 2개 차로를 활용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16일과 17일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부분통제가 실시된다. 특히 17일 야간에는 시간당 15분씩 전면 통제가 이뤄진다.

19일과 20일은 주간(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통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인근에 안내 표지, 현수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공사는 도심 내 혼잡도로 해소와 교통 분산에 기여할 핵심 인프라”라며 “공사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광주·서구·국내·09·0005호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